

전한길 “거대 야당 입법 독재·행정부 마비에 국민저항권 가능”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서 강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NGO 연합 주최로 대통령 탄핵정국의 ‘국민저항권’ 개념 정리를 위한 긴급 세미나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거대 야당이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남용해 29번 출탄핵 등으로 식물 행정부리를 만들고 대통령 직무 정지를 초래한 행태가 과연 법치에 입각했는가”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말했다며 “국민저항권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주권에 대해서 중대한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최후 보장 수단으로서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는 거대 야당의 29번 출탄핵”이라고 했다.

전 강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 정보를 중국에 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

명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호도하나 이는 거짓이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른 고유 권한”이라며 “계엄을 지속하려면 국회 계엄 해제 의결권 지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핵심 증인인 광종근 특전사령관을 상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증언할 것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여부에 관해서도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데도 과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내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한길 강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문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불법일 수 있음이 명시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을 발동했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다”며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을 의도했다는 실체는 없다. 거대 야당



전한길 강사 ©노형구 기자

의 입법 독재로 인한 행정부 마비에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국민저항권 뿐”이라고 했다.

전 강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비리 등이 터지고 있다. 특히 국민주권의 핵심이 투표권 행사라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철저하게 외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이나 외부 기관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사법부는 도둑놈이 낚뿔



발제가 진행되는 모습. 맨 오른쪽이 이호선 교수. ©노형구 기자

는 선관위의 편을 들어준 꼴”이라며 “이는 선관위와 사법부는 한통속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행태다. 헌법이 개정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감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전투표에서 부정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보다 평균 10% 이상 높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계학적으로 어긋난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다면 국회해산권도 발동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발제자로 나선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은 “헌법 66조에 따라 헌법의 최종 수호자는 대통령”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걸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말기암 상태인 연성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사회계약설 원리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약해 권력을 이양받고 통치하는 입법부와 사법부는 이념에 지배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이 국민주권의 제약을 통해 창출된 것으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망가졌다면 국민주권인 국민저항권은 얼마든지 정당화된다”며 “국가 권력이 입법과 사법의 이름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국민저항권에 의해 제압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반은 선례로 남는다. 이는 현재의 잘못된 판결을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다”며 “가령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과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윤석열 퇴진 운동 단체 등의 관계자다. 이들에 대한 회피 신청은 이유 없이 기각됐다. 이는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국민 자유권을 일부 제약해 권리를 이양받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헌법이 아닌 이념에 치우쳐 잘못되게 판결한 헌법재판관을 처벌하는 ‘헌법재판 공정법(헌법재판공정성 보호 및 재판능단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을 입법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자로 박인환 변호사,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홍석준 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노형구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WEA 리더십의혹 여전해… 총회 절대 불가하다”

“신학교수들과 포럼 개최하고 백서 통해 문제 알릴 것”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사진), 이하 한기총)가 포럼과 백서를 통해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의 문



제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총회 개최는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한기총은 12일 낸 보도자료에서 “현재까지 문제를 제기한 인사에 대해 WEA 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같이 밝혔다.

한기총은 “사임한 WEA 전 총무 토마스 슈트마허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과 그와 관련한 지도부 인사들의 신학적, 신앙적 문제들로 인해 수년 전 WEA와의 관계를 이미 단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WEA의 보다 근본적인 신학적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저명한 신학교수들과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이 포럼의 구체적인 일정과 발제문 등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포럼에서는 WEA의 신학적 문제에 대해 조직신학적 관점에서의 이단성과 실천적·사적 관점에서의 성경관 문제를 세밀하게 다룰 예정이며, 발간될 자료를 전국 교회에 배포해 WEA의 실상을 한국교회에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WEA와 내부 지도자들 대한 신학적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WEA의 배도성으로 보여지는 요소 및 행위에 관한 백서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밝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 대교회 회 목회자들이, 과거에도 선배들이 개최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고 하는 오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기총은 WEA 주요 리더십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다섯 차례 발표한 바 있다.

김진영 기자

“WEA 서울총회, 종교 혼합주의 우려”

2025 WEA 서울총회반대연합회, WEA 서울총회 관련 비판 성명

2025 WEA 서울총회반대연합회(회장 맹연환 목사, 이하 연합회)가 12일 성명을 통해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 사무국 개소 감사예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WEA 서울총회 개최 측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WEA 서울총회 개최 측이 광신대학교와 대화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광신대학교는 2025 WEA 서울총회 개최 측과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WEA 서울총회 개최 측이 교수진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WEA 서울총회 개최 측은 마치 광신대학교와 대화가 진행 중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WEA 부사무총장 사무엘 치앙(Samuel E. Chiang)의 행보가 WEA

가 세운 비전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WEA 서울총회 개최 측은 신학적 도전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모색하고 세계 교회의 복음적인 가치와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히면서도, 종교 다원주의적 행보를 보이는 사무엘 치앙에게 개소 감사예배 축사를 맡기고 활동 사무실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특히 사무엘 치앙이 무슬림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24년 2월, 사무엘 치앙은 아부다비를 방문해 무슬림장로협의회(Muslim Council of Elders) 사무총장 모하메드 압델살람(Mohamed Abdelsalam)과 만나 협력을 강화하고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며 “WEA는 이를 인류 형제애 증진을 위한 협력으로 평가했지만, 이는 종교 혼합주의를 조장하는 행보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사무엘 치앙이 무슬림장로협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종교 간 대화를 촉진하고, 혐오 발언과 차별에 맞서겠다고 했지만, 이는 성경적 순수복음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WEA가 인류 형제애, 관용, 평화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며 무슬림 장로협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결국 종교 혼합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회는 “WEA 서울총회 개최 측이 이러한 친무슬림 성향의 인물을 개소 감사예배의 주요 연사로 초청하고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결국 WEA가 종교 혼합주의·다원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WEA 서울총회 개최 측은 자신들이 내세운 신학적 대안과 복음적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2편 박용국 기자

신길 AK푸르지오

신길AK푸르지오 (용역면적 240.07㎡)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
공급대상 : 지하 5층 ~ 지상 24층 5개동 (공동주택101세대, 도시형생활주택1) 296세대 중 주파대수 482세대



49m²B1



49m²A

특별혜택

- 계약시 대형사 파격지원 · 3년전 분양가를 계약 가능 · 선착순 마감 압박
- 계약5개월 후 전금 납부 · 각종옵션 무상제공 · 중도금 무이자

주변아파트 대 매 시 세

평당 4500~5000만원대
5년차 H아파트 9억 5000만원 25년 A월 실거래

신길 AK 푸르지오의 특 장 점

다양한 편의시설: 발코니 확장, 현관 중문, 팬트리 선반 등의 무상 시공과 쉼베냉장고, 세탁기, 하이라이트 3구 국밥, 전기 오븐, 욕실 배대 등 풀옵션 제공

편리한 교통망: 영등포역, 신동역, 신길역과 가파워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 GTX-B, 신민산선, 난곡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 요충지로 자리매김

생활 인프라: 신길동 중심 상업시설 '시라가 쇼펩' 재개발 사업지에 위치해 마트, 카페, 병원, 학원 등 다양한 상업시설과 인접

교육 환경: 우신초, 도림초, 신길중학교, 대영고등학교 등에 도보 통학권 내 위치

계약금

분양대금의 5% 1차계약금 (1000만원)
2차계약금(분양대금의 5%중 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현관 중문, 팬트리 선반 등의 무상 시공, 풀옵션 제공 (쉼베냉장고, 세탁기, 하이라이트 3구 국밥, 전기 오븐, 욕실 배대 등)

*분양권전매가능 *실거주 의무 없음 *청약통장 주택보유예부무관 청약금(300만원) 입금계좌 안내 : 농림 301-0294-7751-91 (예금주 : 대한토지신발(주))
*청약금 입금순으로 등록순 마감합니다. 미계약시 청약금 100% 환불됩니다.

문의 예약 **02.871.9997**

신길AK푸르지오 홍보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6, JS빌딩 2층

■ 시공사 : 대한토지신발(주) ■ 시공사 : (주)대우건설 ■ 위탁자 :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